

2021년 중국의 개발협력 백서 주요내용

'21. 1월 중국은 개발협력 백서 'Chin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New Era'를 발표함. 중국의 경우 개발협력 백서를 통해 ODA 전략, 실적 등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금번 개발협력 백서는 '11년, '14년 이후 처음 발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주요 특징으로는 기존의 '원조'에서 '개발협력'으로 명칭변경, 국익추구 지속, 무상지원을 중심으로 한 ODA의 양적 확대 등임.

※ 다만, 종전 백서와 마찬가지로, 기간 총계 수치만을 공개하고 있는 바, 연 단위 통계자료 및 세부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정보공개' 수준은 여전히 미진

1.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변화 및 전략

- (ODA에 대한 인식) '21. 1월 발표된 중국의 개발협력 백서는 '개발협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는 등 시혜적 의미의 '원조' 개념을 벗어나 개도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기 시작

※ 개발협력에 대한 정의 : '남남협력'의 틀 안에서 개도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양자/다자 차원의 노력

- (전략)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목적으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BRI)*를 활용하여 아시아 및 아프리카 최저개발국을 중심으로 개발협력 실시

* 실크로드 경제벨트(일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일로)를 통칭함. 정책소통, 인프라 연결, 무역확대, 금융협력 강화, 인적교류 확대 등의 기본이념('5통')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중임.

- 이전 백서와 동일하게 윈윈(win-win), 상호호혜(mutual benefit) 등 국익추구 명시
- 나아가, 개도국 거버넌스 개선, 양성평등 고려, 기후금융 등 자국의 지원이 SDGs에 기여함을 강조

- (추진체계) 국무원(State Council) 직속의 중국국제개발협력기구(CIDCA*)에서 개발협력 업무 총괄

* China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 <참고> 중국 ODA 추진체계 참조

<중국의 개발협력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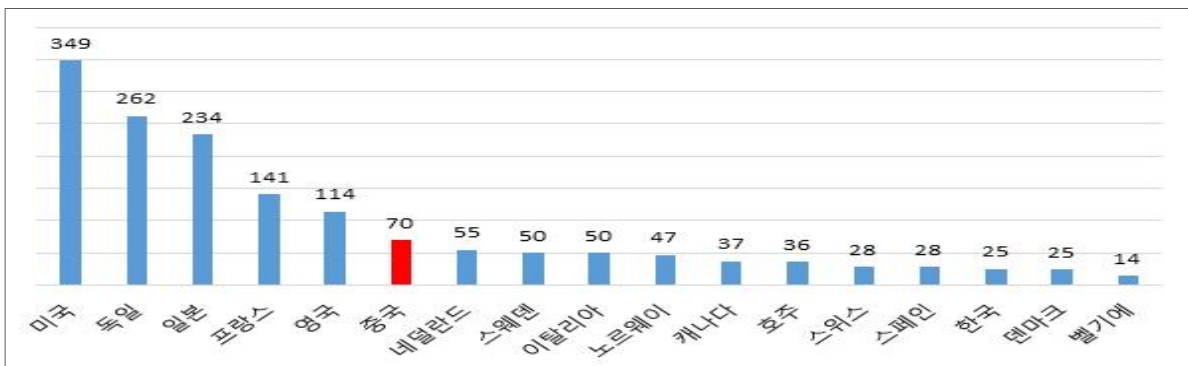
- ▷ **미션:** 개도국의 빈곤감축,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상호 존중, 평등, 정의, 서로에게 이득을 창출하는 협력, 포용 등의 가치 실현
- ▷ **목표:**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 ▷ **원칙:** ①평등한 대우, ②최대한의 지원, ③개발 및 삶의 질 개선에 초점, ④수원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수단 제공, ⑤효율적 개발협력, ⑥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⑦개방·포용적 자세, ⑧국제동향 고려
- ▷ **우선순위:** 아시아 및 아프리카 최저개발국(LDC), 일대일로 참여국

2. ODA 현황

- **(ODA 규모)** '13~'18년 총 지원규모는 2,702억 위안(약 420억불)로, 연평균 450억 위안(약 70억불)이며, 이는 '10~'12년 연평균(298억 위안, 약 46억불) 대비 약 51.2% 증가한 수치
- 지원규모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나, 승인액 기준으로 가정할 경우, 동 규모는 DAC 회원국(29개국) 상위 6위 수준

< 주요 DAC 회원국 및 중국의 ODA 실적('13~'18년 평균 승인액 기준) >

(단위: 억 달러)



자료: OECD Statistics('21.4.15자, current prices 기준), 중국 개발협력 백서('21. 1월).

- **(지원방식)** 무상 및 유상지원(무이자차관, 양허성차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원조건의 경우 '11년 백서 이후 언급 無

< 중국의 ODA 지원방식 >

지원방식	내용
무상지원	• (지원분야) 중소형 사회간접시설(병원, 학교 등) 구축, 교육훈련, 기술협력, 기자재 지원, 긴급구호 등
무이자차관	• (지원분야) 수원국 공공시설 및 복리증진 사업 • (지원조건) 상환기간 20년(거치기간 10년) 내외 ^{주)}
양허성차관	• (지원분야) 대형인프라 건설, 기자재 지원, 기술서비스 제공 등 • (지원조건) 금리 연 2~3%, 상환기간 15~20(거치기간 5~7년) 내외 ^{주)}

주) '11년 개발협력 백서 기준.

- '13~'18년 지원수단별 구성은 '10~'12년 대비 무상지원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36.2%→ 47.3%)된 반면, 양허성차관 비중은 감소(55.7%→ 48.5%)

< 지원수단별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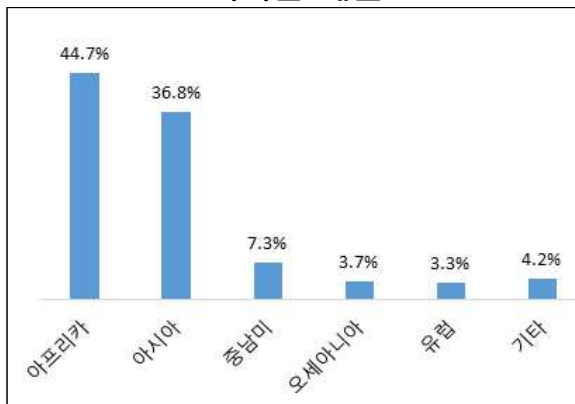
(단위: 억 원)

지원방식	1차 백서('09년)		2차('10~'12년)		3차('13~'18년)	
무상지원	1,062	(41.4%)	323	(36.2%)	1,278	(47.3%)
무이자차관	765	(29.9%)	72	(8.1%)	113	(4.2%)
양허성차관	735	(28.7%)	497	(55.7%)	1,131	(48.5%)
총 계	2,562	(100%)	892	(100%)	2,70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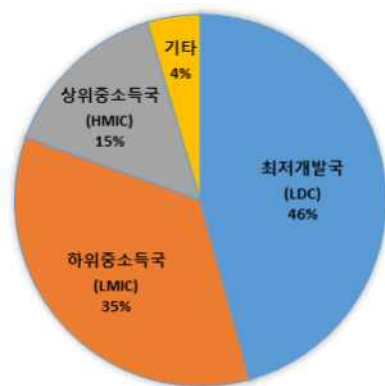
- (지역별·소득그룹별 배분) '13~'18년간 지역별로는 아프리카(44.7%), 아시아(36.8%), 소득그룹별로는 최저개발국(45.7%), 중위소득국(34.8%) 비중이 높은 편

* '14년 백서에서는 지역별, 소득그룹별 비중에 대한 언급은 없음. 다만, 중국 신화사 자료에 따르면 '10~'12년 지원금액 기준 지역별 비중은 아프리카 51.8%, 아시아 30.5%임.

<지역별 배분>



<소득그룹별 배분>



* 지원대상국가(수) 기준(국가별 지원금액은 확인불가) : 아프리카 53개국, 아시아 30개국 등

- (분야별 배분) 완공사업 건수(총 423건) 기준, 사회인프라(306건, 72.3%), 경제인프라(80건, 18.9%), 농업(19건, 4.5%) 順*

* 동 수치는 '건수' 기준이므로,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배분비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다만, 신화사 자료에 따르면, '10~'12년 금액기준 분야별 배분비중은 경제인프라 44.8%, 사회인프라 27.6%로 나타남.

3. 중국의 코로나19 지원 현황

- (지원내용) 다자기구 앞 기여, 채무유예 실시, 의료물품 및 의료 기자재 제공, 전문 의료진 파견, 의료기관 조기설립 추진 등
 - WHO(50백만불), UN(50백만불), ADB(10백만불) 등 납입
 - G20 채무상환 유예(DSSI) 참여, 아프리카 국가들 앞 무이자차관 상환면제
 - 전세계 150개국, 10개 국제기구 앞으로 진단키트, 마스크, 의료용 장갑, 환풍기, 적외선 체온계 등 제공
 - 전세계 33개국 앞 35개의 의료진(medical team) 파견
 - 공공보건인프라 건설 지원
 - 에티오피아 내 아프리카 질병청(CDC) 본부 건설 ('20.12월)
 - 모리타니아 국립병원 내 외래병동 건설
 - 도미니카-중국 우정병원 내 기숙사동 건설
 - 파키스탄 등 임시 격리시설 건설

4. 일대일로를 통한 개발 협력

- 중국, '13년 일대일로 구상 발표 이후, '17년 및 '19년 2차례의 '국제협력을 위한 일대일로 포럼*'을 개최

* 다수 국가('17년의 경우 29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총재가 참석,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평가됨.

- (1차 포럼) 개도국 복지 향상을 위해 3년간 600억 위안(약 89억불) 규모의 개발사업 지원, 20억 위안(약 3억불) 규모의 긴급식량지원, 남남협력지원펀드에 10억불 납입, 유관 국제기구앞 10억불 지원 등의 계획을 발표
- (2차 포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남협력 이니셔티브 이행, 농업·보건·재난 경감·수자원 분야 협력 확대, 수원국 인력(1만명) 초빙, 공공복지사업 지원 확대, 중국 정부 장학제도 프로그램 지속 등의 계획을 발표

<일대일로 국제포럼의 주요 내용 및 성과>

주제	목적	형태	성과
정책 소통	수원국과의 상호 신뢰 구축, 상호이해를 반영한 실질적 협력 추진	수원국 정책결정자 초청, 전문가 현지파견 등	China-Belarus Great Stone Industrial Park
인프라 연결	고속도로, 철도, 항구, 교량, 통신네트워크 건설 등	고대 육상 실크로드 재현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축 항공 운송 허브 구축	-6대 경제회랑 구축 등 -항구건설 지원 -공항 확장 지원
무역 활성화	무역인프라, 역량강화	무역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및 무역역량 개선	-컨테이너 검사장비, 선박구입 지원 -전자상거래 정책 수립 지원 등
자금 유통	수원국 금융시스템 개선	금융환경 최적화 다자금융협력플랫폼 구축	-은행카드 지급 시스템 구축 등 -다자협력센터 공동 설립
민심 상통	인적교류, 문화협력 촉진	국민생활수준 개선 인적교류 확대 문화협력 촉진	-상수공급시스템 구축, 병원 구축 등 -인력초빙·파견 -문화유산 공동보전

5. UN 2030 아젠다 이행에 기여

◇ 중국은 빈곤감축, 식량보안, 보건, 교육의 질, 양성평등, 인프라,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경제성장, 환경보호를 통해 UN 2030 아젠다* 이행에 기여

* UN 2030 아젠다: '30년까지 빈곤퇴치, 식량안보 등 17가지의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달성

- ☐ (빈곤감축) 중국의 빈곤감축 경험 공유, 농촌지역 소득증대, 소외계층 보호 등을 위한 시범사업 다수 지원
- ☐ (식량보안) 농업생산성 제고, 전문가 육성, 농공연계 지원 등
- ☐ (교육의 질) 기초교육 지원(교육시설 건립, 시설·장비 제공), 전문 교육 개선(대학, 연구센터 건립), 중국 내 학위취득 지원('13년 이후 총 4,300명) 등
- ☐ (양성평등) 모자보건사업('15년 이후 100건), 여성인력 양성('13년 이후 60개 프로그램 진행) 등
- ☐ (인프라) 공공시설 건립, 도시환경 개선, 에너지 접근성 제고 등
- ☐ (지속가능 성장) 산업화 촉진, 디지털 경제 구축(37건)

- **(환경보호)** 신재생에너지 발전, 생물의 다양성 추구, 기후변화 대응, 사막화 방지, 해양 및 삼림자원 보호 등 지원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15년 남남기후협력기금(South-South Climate Cooperation)을 설립하여, 저탄소 산업단지 시범사업, 기후변화 저감·적응 프로그램 등을 추진 중

6.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동 노력

◇ 중국은 긴급재난경감, 공공보건 긴급대응(코로나19 대응 포함), 기아 극복을 위한 식량지원, 사후재난극복과 재건 지원, 재난 예방 및 경감,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동 노력 중

- **(긴급재난지원)** 대규모 재난 발생국* 앞 재난물품, 구조인력, 자금 등 지원

* '15년 네팔, '16년 에콰도르 지진사태 등
- **(전염병 대응)** 에볼라, 지카 등 전염병 대응을 지원하였으며, '20년 코로나19의 경우 단기간, 최대 규모가 지원된 사례
- **(재난 예방·경감)** 재난관리시설 구축, 재난예방사업 추진, 역량 개발, 정책고안 등 지원
 - 22개국 및 국제단체와 '일대일로 지진위험 경감 협력체(Belt and Road Earthquake Risk Reduction Cooperation)'를 수립하여 재해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

7. 개도국의 자립 성장 지원

◇ 거버넌스 개선, 전문가 육성, 기술협력 등을 통해 개도국이 주체적,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거버넌스 개선)** 정책설계 지원, 중국의 개발경험 공유, 다자 협력체(UN, AfDB, IDB 등)를 통한 역량개발 사업 다수 추진
- **(기술진보 촉진)** 기술공유 프로그램, 기술전문가 육성, 기술이전 센터 건립, 기술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도국의 기술 진보 지원

8. 국제사회(삼자협력 포함) 협력 강화

◇ 중국은 남남(South-South Cooperation) 협력을 중심으로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며, 각종 협의체를 통한 국제사회 협력 지속

- (협력 플랫폼)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상하이협력기구* 등 다자간 협의체 구성 및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간 협의체인 '국제협력을 위한 일대일로 포럼' 개최

*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국이 설립한 국제조직

- (최근 협력사례) '20.6월 개최된 중국-아프리카 코로나-19 대응 특별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아프리카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 중국은 코로나-19 방역 성과에 따른 아프리카 경제 지원 확대와 백신 원조를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주도권을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

9. 중국 국제개발협력 향후 전망

◇ 코로나-19 이후 보건위기 대응과 UN 2030 아젠다 이행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중국은 개발도상국과 상호협력을 통한 발전을 강조함으로써 일대일로 정책을 가속하며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임

- (세계 보건위기 대응) ① 코로나-19 대응 지원*, ②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공중보건 시스템 개선 노력, ③ WHO 및 G20, APEC, BRICS 등 국제기구 협력 지속

* 개도국 앞 의료기기 지원, 의료기술 협력, 의료전문가 파견 및 향후 2년간 코로나-19 피해국가 앞 20억불 지원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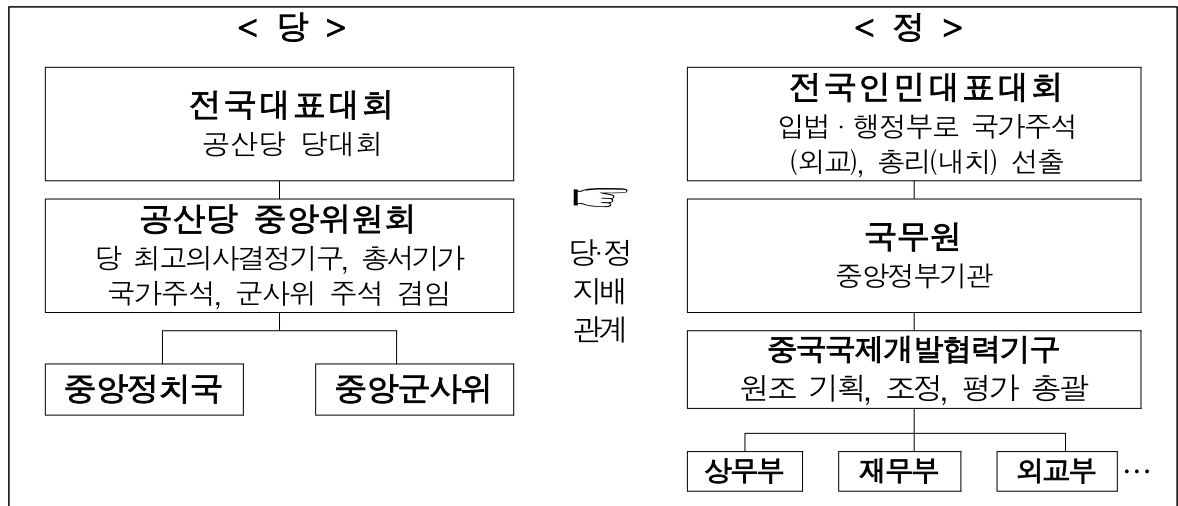
- (UN 2030 아젠다 이행 노력) ① UN 공동선언 등 국제적 책임 이행, ②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개도국과 정책 조율 등 공동 협력 강화, ③ 빈곤 감축 등 삶의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수립, ④ 남남 협력의 중심적인 역할 지속, ⑤ 글로벌 위기에 연대 강화

- (개발협력을 위한 역량 강화) ① 일대일로 정책 및 UN 2030 아젠다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전략 및 체계적인 프레임워크 마련, ② 사업효과성 증대를 위해 사업관리 프로세스 개선, ③ 사업 감독 및 평가 강화

- (ODA 추진체계) 국무원(State Council) 직속의 중국국제개발협력기구('18년 설립)*에서 대외원조 정책을 총괄

* China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CIDCA)

<중국의 ODA 추진체계>



자료 : Denghua Zhang & Graeme Smith(2017) 등

- 중국국제개발협력기구는 총 7개 부서로 구성

<중국국제개발협력기구 부서구성>

부서 (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neral Affairs · Policy & Planning · Regional Affairs 1(Asia, Eurasia, West Asia and North Africa, Central and Eastern Europe) · Regional Affairs 2(Africa, Latin America, the Caribbean, the South Pacific) · Supervision & Evaluation · International Cooperation · Party-related Affairs / Department of Personnel

- (집행기관) 상무부에서 무상원조 및 무이자차관, 중국수출입은행(CEXIM)에서 양허성차관을 집행
- 상무부 외 약 28개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도 무상원조 집행

<중국의 ODA 총괄·집행 기관>

구분	총괄기관	집행기관
유상	중국국제개발협력기구 (CIDCA)	중국수출입은행(양허성차관), 상무부(무이자 차관)
무상		상무부 외 28개 기관